



그림책 작가의 작업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일본 그림책 작가 16명의 작업실 풍경을 보여 준다. 작가들이 그림책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림책 작가와 작품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작가를 이해하고 그림책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다.

후쿠인칸쇼텐 「어머니의 벗」 편집부 지음 | 엄해숙 옮김 | 244쪽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

‘좋은 그림책은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어떤 그림책을 읽어 줘야 할까?’ 그림책을 읽어 주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지도서이다. 어른 스스로 먼저 공감하고 감동한 그림책을 어린이에게 읽어 주고 보여 주면서 그림책과 어린이들이 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제안한다.

마쓰이다다시글 | 이상금 옮김 | 226쪽

-
-
-
-

이웃 나라에서 바라본 우리 그림책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세계의 어린이책과 작가들』은 과도기에 있던 우리 그림책 세계의 현장을 이웃 나라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 생생한 체험기다. 과거 속에서 미래가 있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 그림책이 세계의 어떤 독자라도 소통할 수 있는 보편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지난날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책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 류재수 (그림책 작가)

최근 한국의 그림책이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작가 개인의 역량이 우수하다는 점 외에도 한국의 그림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출판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저작물을 소개한 호즈미 선생의 숨은 노력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 강우현 (그림동화작가/그래픽디자이너)



값 19,000원



ISBN 978-89-7094-074-8 03600
www.hollym.co.kr



세계의 어린이책과 작가들

호즈미 타모츠 지음 · 황진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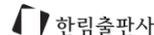
한림출판사



호즈미 타모츠 지음 · 황진희 옮김

오병학 · 이금옥 · 박민희 · 정숙향 · 김경애 · 강효미 · 방정현 · 이태준 · 이주홍 · 현덕 · 이상 · 윤석중 · 백석 · 권정생 · 이우경 · 홍성현 · 강우현 · 류재수 · 이덕배 · 민윤덕 · 현병호 · 정승자 · 이호백 · 이영경 · 호리우지 세이이지 · 초 신타 · 오타 다이이치 · 아카바 수에키치 · 안노 미쓰마사 · 사토 와키코 · 다치바 세이조 · 다치바 유키히코 · 니시마키 가야코 · 야마와키 유리코 · 나가노 히데코 · 와카야마 시즈코 · 하야시 아키코 · 고미 타로 · 사사키 마키 · 니시무라 시게오 · 스즈키 코지 · 아베 히로시 · 이시즈 치히로 · 하라 유타카 · 무로카와 미즈히로 · 히로세 가쓰야 · 코미네 유라 · 사이토 마키 · 세타 테이지 · 이시이 모모코 · 에릭 블레그비드 · 예곤 마티센 · 스펠 오토 · 비나넷 왓츠 · 이치카와 시토미 · 브루노 무나리 · 딕 브루너 · 크레타 파코브스카 · 비네테 슈피디 · 리즈베스 쇼베르거 · 마거릿 윌모이 그레이엄 · 에릭 힐 · 마가렛 레이 · 모리스 셀락 · 피터 스피어 · 에릭 칼 · 미하엘 엔데 · 임 스타울 올센

세계의 어린이책과 작가들 - 「너들의 50년 권」



한림출판사

호즈미 타모츠 지음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1972년 후쿠인칸쇼텐에 입사하여 약 23년 동안 어린이책 출판사에서 일했습니다. 1997년 11월 저작권 관리를 하는 미디어링크스 재팬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비영리단체 ‘어린이책 WAVE’의 대표이자 일본서적출판협회 지식재산위원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황진희 옮김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림책 여행을 할 때 가장 마음이 설레고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림책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합니다. 『숲으로 읽는 그림책테라피』를 지었고, 『태어난 아이』 『왕이 된 양치기』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 『그래도 넌 내 친구!』 『비 오니까 참 좋다』 『잠았다!』 등 많은 책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황진희 그림책테라피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지 그림 고미 타로 © illustrated by Gomi Taro, 2000